

4월인데 더웠다 추웠다...윤달 낀 봄 날씨 '변덕쟁이'

'2월 윤달'에 기온 급등락 잦아 농작물 피해·생활 불편 호소 북쪽 찬공기·남쪽 따뜻한 공기 번갈아...과거에도 기온 낮아 라니냐현상 영향 5월 초여름 더위...6~7월도 평년보다 더울 것

4월 중순 30도에 육박하는 낮 최고기온이 며칠 만에 다시 10도 안팎으로 떨어지는 저온과 고온을 오락가락하는 변덕스러운 날씨.
봄의 절정인 4월, 날씨는 기온에 광주·전남 지역 민들은 아침마다 어떤 옷을 입고 나가야 할지 고민하는 등 생활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농촌에서는 이상저온에 냉해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기상청은 봄철 기온의 유동성에 따른 것이라고 하지만, 윤달이 낀 윤년(潤年)엔 기상이변이 잦다는 속설과의 연관성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광주전남기상청은 지난 20일 곡성 석곡에서는 낮 최고기온이 29.9도로 광주·전남 올해 최고기온을 기록했다. 광주 역시 같은 날 28.4도로 집계되며 초여름 날씨를 보였다.

하지만 25일 전남의 낮 최고기온이 가장 높은 곳은 거문도로 14.6도로 떨어졌다. 전남 대부분 지역이 10~13도로 분포했다. 같은 날 광주 낮 최고기온은 13.1도로 5일만에 15도가량이 떨어져 쌀쌀해졌다. 또 이를 뒤인 27일에는 전남 낮 최고기온은 24.5도까지 올랐고 광주도 23~24도 분포를 보여 다시 따뜻한 날씨로 돌아왔다.
최저기온도 마찬가지다. 20일 광주와 전남에서 가장 낮은 곳은 10.3도와 10.4도(신안)를 기록했다. 27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권을 보이는 곳도 있으며 내륙을 중심으로 평균 0도를 기록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기상청은 '계절적 특성'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봄철은 계절이 겨울에서 여름으로 변해가는 전이

기간으로 북쪽의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을 받을 때는 기온이 떨어지고 반대로 대륙고기압이 이동성고기압으로 바뀌면서 서풍·남서풍이 불면 기온이 올라간다는 것이다.
4월 중순 갑작스럽게 온도가 낮아지는데 대륙성 25일 1.3mm 가량의 비가 내린 뒤 저기압이 제주도 남해상으로 지나가는 과정에서 따뜻한 수증기가 유입되지 못해 상대적으로 찬 공기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처럼 갑자기 찾아온 추위는 생활 불편을 포함해 각종 피해를 가져오기도 한다.
다음달 12일까지 농작물 저온 피해 집수를 받고 있는 전남도는 "최근 집수된 저온피해 가구는 2354호, 면적으로는 828ha에 달한다"면서 "주로 배춧과 매화, 사과나무 등 과수에서 피해가 많은데 꽃이 떨어져 열매가 제대로 열리지 않게 되거나, 과실에 얼룩이 생겨 가격이 떨어지고 맛이 덜하게 돼 상품성이 하락하게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 같은 변덕스러운 날씨는 올해 3월 22일부터 4월 19일까지 이어진 '윤달'의

영향이라는 주장도 있다.
윤달이 낀 윤년은 올해 3년만에 돌아왔는데 윤년에는 계절 변화가 심했다. 올해와 같은 시기의 윤달인 2004년을 살펴보면 해당 연도를 전후로 비교적 낮은 온도를 것을 확인할 수 있다.
4월 한달동안 가장 낮았던 평균기온을 살펴보면 2002년은 8.6도, 2003년 9.4도, 2005년 7.4도, 2006년 7.7도, 2007년 7도, 2008년은 9.1도인데 비해 윤년인 2004년에는 6.7도로 비교적 낮았다.
윤달을 음력으로 계산했을 때 계절상 겨울인 2월이기 때문에 겨울철 날씨 영향을 받는다는 목소리도 있다. 이 때문에 윤년엔 봄이 짧고 겨울이 길게 인식된다는 것이다.
또 오랫동안 음력을 써온 우리나라 세시풍속과 음력을 기준으로 한 24절기가 양력에 익숙해진 계절변화와 달라 기상이변이 잦은 것으로 느낄 수도 있다는 설명도 있다.
서경석 전남대학교 호남학연구원 특별연구원은 "계절의 날씨는 태양력에 절대적인 영향을 받는다.

윤달은 태양력도 태음력도 아니기 때문에 윤달 때문에 더욱 추웠다고 할 수는 없는 부분"이라면서 "대개 양력 4월을 음력으로 계산했을 때 3월인 경우가 대부분인데, 윤달이 낀 2004년과 올해 윤달을 음력으로 계산하면 2월 중순 즈음이기 때문에 윤년을 전후로 했을 때 비교적 춥게 느껴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5월이 되면서 평년보다 높은 초여름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늦봄인 5월부터 초여름 같은 날씨가 시작된다. 기상청은 "5월은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평년(17.4~18.0도)보다 높을 가능성이 50%이고 6월은 평년(21.2~21.8도)보다 비슷하거나 높을 확률이 40%"라고 전했다. 또 7월은 저기압의 영향으로 흐리고 비가 오는 날이 많으며 평년(24.4~25.6도)과 비슷하거나 높을 확률이 40%라고 예보했다.
5~6월의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는 최근 라니냐 현상으로 서태평양의 해수면 온도가 뜨거워졌기 때문이다.
/김다민 기자 kdi@kwangju.co.kr

"일본에 굴욕외교 윤 대통령 퇴임하라"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내달 1일 광주서 시국미사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이 다음달 1일 광주시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일본에 저지세 굴욕 외교를 보여준 정부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대규모 시국미사를 개최한다.
천주교 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와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은 5월 1일 오후 7시 5·18민주광장에서 '전일대국 검찰독재 윤석열 퇴진 주권회복을 위한 시국미사'를 연다고 27일 밝혔다.
광주 시국 미사는 약 1시간 30분 가량 소요될 예정이다. 예상 참석 인원은 신부 200여명을 포함한 2000여명으로, 전국 각지에서 뜻을 함께하는 신자들이 한데 모일 것으로 알려졌다.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사제단은 "윤 대통령은 3·1절 기념사 망언부터 일본과의 굴욕외교, 한미일 동맹을 강조하며 전쟁의 위험까지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다민 기자 kdi@kwangju.co.kr

이어 "5월 10일이면 윤 대통령 취임 1주년이다. 현재까지의 행보를 토대로, 남은 윤 대통령의 임기 동안 앞으로의 대한민국을 생각하면 우리나라의 발전을 위해 퇴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같은날 광주지역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지원단체인 (사)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시민모임)도 윤 정부의 일본 외교 성과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한국 정부가 24일 일본을 전락물자 수출 심사 우대국으로 복원시킨 반면, 일본은 26일 한국 측의 항우 자세를 신중히 지켜보겠다고 한국을 수출 절차상 우대국으로 선정하지 않는데 대한 것이다.
시민모임은 "일본에 다 파주는 것도 부족해, 이제는 국제적 호구 신세를 면치 못하는 꼴이다. 윤 대통령은 일본과의 회담에 대해 책임지고 당장 그 자리(대통령직)에서 내려와라"고 말했다.
/김다민 기자 kdi@kwangju.co.kr



돌봄노인 귀갓길에...

7일 오전 11시 50분께 광주시 서구 치평동 한국은행 앞 사거리에서 50대 남성이 몰던 카니발 차량이 앞서 가던 모닝 차량을 추돌하는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모닝이 도로 연석과 가로수를 잇따라 들이받고 뒤집혀 운전자(여·60대)와 동승자(여·80대)가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모닝 운전자는 요양보호사로, 돌봄노인을 태우고 집으로 데려다 주던 길에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다민 기자 kdi@kwangju.co.kr

日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광주·전남행동' 출범

농민회 등 250여 단체 참여

광주·전남 농민회와 어민회, 시민사회, 종교계 등 250여개 단체가 27일 광주시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일본 방사성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광주·전남행동' 단체를 출범하고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계획을 규탄했다.
단체는 출범식에서 "일본은 인류의 생명을 위협하는 방사성 오염수 방류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면서 "한국 정부는 국제해양법을 위반하고 일본의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를 저지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일본 정부는 올 여름부터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방사성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겠다고 결정했다"며 "일본 정부는 방사성 오염수에 포함된 방사성 물질에 대한 종류, 총량 등 정확한 정보를 밝히지 않고 있으며, 생물학적 농축에 대한 연구 또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지난 3월 한일 정상회담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 기시다 총리로부터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에 대한 협조와 이해를 요청받았다고 한다"며 "이에 대해 정부는 침묵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유연재 기자 yjyou@

"의료취약지 전남에 의과대 설립해달라"

광복회 등 전남 보훈단체 15곳

광복회, 4·19민주혁명회, 5·18 공방단체 등 전남지역 15개 보훈 단체가 "전남도에 국립의과대학을 설립해 달라"며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 단체는 27일 목포시 옥암동 전남보훈회관에서 성명서를 내고 "전국에서 유일하게 의과대학과 상급종합병원이 없는 곳이 전남이다"며 "전남 보훈 가족이 지역적으로 차별받지 않고 치료받을

관리를 보장하기 위해 전남도 국립의과대학이 하루빨리 설립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단체는 "매년 전남에서 70만명의 전남도민들이 타 시도로 원정 진료를 떠나고 있고, 이로 인한 의료비 유출만 1조 5000억원에 달한다"는 주장을 폈다.
또 최근 경실련 의료실태조사 결과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등 5개 필수 의료과목 전문의 수가 전국 평균 이하를 기록했다

는 주장도 내놨다.
국가 지정 책임의료기관인 순천의료원과 목포의료원도 이들 5개 의료과목에 대해 전문의가 없거나 아예 진료과를 개설하지 않는 등 의료 공백이 심각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우봉 대한민국 월남전참전전지회 전남도지부장은 "의향 전남에서 더이상 국민의 기본권인 의료기 무너지는 것을 지켜볼 수 없다"며 "전국 최약의 의료취약지인 전남에 반드시 국립의과대학이 설립될 수 있도록 3만 5000여명 보훈 가족이 앞장설 것이다"고 밝혔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제안하면 거절하고!

발견하면 신고하고!

한사람의 보험비로 전국민의 경제부담 줄이겠습니다

보험사기 ZERO

- 고의로 보험금을 노린 생명·신체 훼손 행위 NO!**
- 허위 사고, 허위 진단, 과다 입원 행위 NO!**
- 브로커를 통한 환자 소개·알선·유인 행위 NO!**
- 고의 교통사고, 차량 수리비 과다 청구 행위 NO!**

신고 방법

금융감독원 콜센터
국번없이 1332 ▶ 4번 ▶ 4번

각 보험회사 대표번호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www.fss.or.kr ▶ 보험사기 신고

각 보험회사 홈페이지
보험범죄신고센터

처벌 사항

10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적용)

신고 포상금

적발 금액에 따라
최대 10억원 지급